

# 백범이 세운 정착촌, 재개발 비위세력 먹잇감 됐다

〈백화마을〉

### 광주시 소유 백화마을 잔존 주택 무허가 둔갑시켜 분양권 확보 '학동참사' 조합장·정비업자 구속 영장...재개발사업 지연될 듯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행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이 재개발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에 대한 구속이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원 성모(56)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保留地) 뒷으로 지정된 아파트 2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땅이다.

조씨는 또한 같은 시기 무허가업자로부터

5000만원짜리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조경공사비를 20억원 상당 과다하게 책정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행위를 돕고 성씨 가족 명의 회사에 1억 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특혜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조합장인 조씨가 공무원 신분인 해당한다는 점에서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씨는 학동 4구역에 있는 학동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둔갑시켜 조씨 가족이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다수 분양권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지원금으로 조성된 100여 가구의 전제민(戰災民) 정착촌으로,

광주시 소유로 남아있던 폐가 등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편입됐다.

성씨는 도시정비사업자 신분을 악용해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키고, 거주자를 허위로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까지 서며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경찰은 성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상 무허가건물(일정면적 이상)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시 분양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조합장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가 정지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병 처리를 마지막으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수사는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는 검찰 송치시 추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년 3개월여간 학동 붕괴관련 수사를 진행해 재개발 조합비위로 브로커 4명, 조합관계자 5명, 업체 관계자 22명 등 총 31명을 입건·조사해 일부는 송치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조만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검찰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소장 등 항소

검찰이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법원에 제출했다.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사·감독을 한 원청 관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

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법인들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면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안전성 검사 미시행)에 대해서만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7명의 경우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권 보건·자동차·ICT 채용박람회 개최

### 광주 고용노동청, 15~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의 주요 업종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보건·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한 광주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보건으로 업종 등 3개 업종의 구인·구직 미스매칭(부조화)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미니 취업박람회 일자와 장소는 보건·의료업종은 15일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자동차업종은 22일 전일빌딩 245, ICT업종은 29일 전일빌딩 245이다.

지역의 강소·중견 기업 70여개 사가 참여해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워크넷(www.work.go.kr)과 광주잡페어(gwangjujobfair.co.kr) 누리집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외 1대1 맞춤형 취업컨설팅, 면접컨설팅 등 구직 역량강화 서비스와 워크넷 화상면접 활용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기업에는 박람회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구인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로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에는 기업, 청년, 일반 구직자 등에 게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도 운영된다. 기업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일터혁신 컨설팅, 기초 노동 관계법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침수차 탈출 이렇게

광주시 북구 청년년부위원과 직원들이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집중호우 및 침수사고 발생시 차량 탈출 행동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전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막는다

### 26일까지 목포·여수 등 6곳 배수펌프·차수판 등 안전감찰

전남도가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감찰을 나선다.

이번 안전감찰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도내 공동주택이 많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물막이설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2012년 4월 이전 건축 아파트와 소하천 인근 공동주택이다. 대상 건물을 선별해 표본점검을 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침수방지 대책 수립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비치 ▲배수펌프 가동 ▲집수장

및 역류 방지 밸브 설치 ▲피난통로 확보 ▲경보방송 및 CCTV 작동 ▲침수 시 실무매뉴얼 및 행동요령 준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시정 기한을 두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후·위험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응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성 기자 chadol@kwangju.co.kr

##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선발

### 광주 18명·전남 228명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선발한다.

14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일반 유치원 3명, 초등 6명, 특수유치원 3명, 특수학교(초등) 6명 등 총 18명을 선발한다. 도 교육청은 일반 유치원 58명, 초등 163명, 특수유치원 3명, 특수학교(초등) 4명 등 총 228명을 뽑는다.

응시원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ne.go.kr)을 통해 접수한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12일 실시하며, 2차 면접·실기시험은 2023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3년 1월 27일 발표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현제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